**두메산골에서 울리는 망치소리 – 양구병영BTL 현장**

박재연 대리

강원도 두메산골 양구. 아침이면 계곡 사이로 물안개가 피어나고 바로 눈앞 산 중턱에 구름이 매달려 있는 아름다운 전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그곳에서 이른 새벽 싸늘한 새벽공기를 마시며 구슬땀을 흘리는 많은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양구군 육군 양구 병영 BTL현장입니다.

처음 양구 병영현장으로 발령을 받고 떠오르는 생각은 군시절 지내던 내무반 막사였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역시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짐작합니다. 사각으로 된 간단하고 단순한 건물. 하지만 이곳 또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착공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착공을 하려는 그 시기, 가뜩이나 힘들어질대로 힘들어진 건설업의 여파로 우리 회사 역시 워크아웃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관사 및 감리단측과의 협의과정에서 착공시기 자체가 이웃한 5개 현장과 비교해서 3개월이나 늦춰졌고, 덕분에 공사가 비교적 수월한 봄과 초여름을 보내고, 폭우가 휘몰아치던 장마철에나 착공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공사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현장의 전 직원들은 뒤쳐진 공기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고자 한달 반이나 지속된 비속에서 현장의 각종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TV에서 보던 동남아시아 건설현장의 모습이 우리현장에서 고스란히 재현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공사는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먼저, 외형적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설계상 지하층 줄기초와 PIT 그리고 지중보, PIT와 깊이가 다른 기계실로 인해, 1층 바닥까지 도달하는 것만 해도 무려 9번의 콘크리트 타설과 4번의 되메우기 과정이 필요 했습니다. 건물의 독특한 형태와 구조가 공사에 막대한 영향을 준 것이지요. 덕분에 공사기간을 맞춰나가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음으론 BTL이라는 사업형태가 결코 쉽지않음에 있습니다.

BTL(Build Transper Lease) 즉, 민간투자사업는 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일정기간동안 임대료를 받는 형식의 사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해진 사업비’라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문장 하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독시공이 아니라 공동사 체제로 진행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사용부대측은 각 현장에 각종 요구를 하고 불필요 항목을 삭제하기도 하며 수없이 설계변경이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정리해서 이끄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지만큼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발생하는 변경사항들로 인해 지분률이 변동될 수 있고, 그 때문에 각 현장의 담당자들이 각자 자신들이 속한 회사를 위해서 보이지 않은 날을 세우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구병영현장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수급 및 관리의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구병영현장은 A / B-1 / B-2이렇게 3개 지역으로 나눠져 18km가 넘는 공사현장간의 거리로 원활한 작업인원 투입 및 배치의 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양구’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원할한 인원의 수급 뿐만 아니라 자재의 수급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현장에 비해 높은 단가의 인건비와 경비, 자재 및 장비비용으로 인해 자칫 방심하면 공사기간이 늘어지는 것은 물론 공가 원가율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기에 관련 스케줄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덕분에 공사기간 내내 우리 현장의 모든 직원들은 항상 긴장감속에서 근무하는 상황이지요.

더욱이 조만간 일일 평균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른다는 양구의 겨울이 다가옵니다. 11월부터 4월초까지 이어지는 그 겨울이 오기 전 습식공사의 대부분을 끝내야만하는 상황이기에 전 직원이 각자의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 공기단축을 위해 더욱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 장마철, 협력업체 임직원과 현장 근로자들을 다독이며 빗속에서 터파기 공정을 진행한지 4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는 최상층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올라가면서 둘러보니, 10여년 전 제가 복무했던 당시의 병영시설과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의 시설들을 보면 절로 감탄사가 나옵니다. 초등학교 교실만한 공간에 양측으로 나눠진 침상에서 4-50명이 어깨를 붙이고 잠을 청하던 그 시절과 비교하면 침대, 신발장은 기본이고 군화세척실과 회의실, 석재로 내부가 마감된 건물내 목욕탕 등등…너무나도 달라진 도면상의 시설들을 보면서, 격세지감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현장직원들은 후배 장병들이 좀더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완벽한 병영시설을 짓고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가을 문턱에 들어섰음에도 이곳 양구의 새벽기온은 벌써 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겨울은 최저 영하 30도까지도 예사로 내려간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 현장의 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사고 준공과 원가절감을 목표로 시간을 다투는 우리 현장직원들의 열기가 뜨겁게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구병영BTL 현장 임직원 모두는 내년 6월을 준공 목표로 더욱더 땀 흘리겠습니다.

**<<우리 현장직원 소개>>**

**안병태 소장**

세심한 배려와 강한 추진력으로 업무에 있어서는 강한 호랑이이지만 업무외적으로는 마치 큰형 같은 푸근함으로 직원들에게 다가서는 분

**오영필 기계담당 차장**

풍부한 경험과 특유의 꼼꼼함으로 어느 누구보다 먼저 공종간 문제점을 도출해내시고 해결해 나가시는 로맨틱 가이이자 우리 현장 숙소 쉐프~!!

**이호철 관리담당 차장**

양구관사과 병영으로 두곳으로 이뤄진 현장을 두루두루 세심하게 살피는 엄마같은 존재. 오늘도 현장직원들의 밥투정, 반찬투정에 시달리면서 어려운 살림을 현명하게 꾸려나가는 살림꾼

**김상우 안전담당 차장**

전문 컨설턴트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안전뿐 아니라, 다방면의 잡학다식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안전분야의 달인!!

**윤형철 공사담당 과장**

오랜 현장경험으로 무장하고, 불도저식 업무추진력을 발휘하는 현장의 카리스마 소유자이자 분위기 메이커. 어떤 문제도 우리 현장 공사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

**박재연 공사담당 대리**

공사과장의 불도저식 업무추진을 웃으며 받아치는 내공을 소유한 A지역 공사담당. 현장의 팽팽한 긴장감을 조율해,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되도록 함

**김대용 전기담당 대리**

실제 체구는 작지만, 든직한 모습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그의 뒷모습은 산처럼 크게만 보일 뿐. 업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살피는 성실맨

**한정훈 공무담당 대리**

적이 않은 나이에 현장의 특수성으로 현장 막내라는 꼬리를 붙이고 다니고 있음. 원활한 현장 공사진행을 위해 다방면에 세심함을 발휘해야 함에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Perfect-man

**<<양구병영BTL현장 개요>>**

▣ A지역

        - 대지면적 :  11,800㎡

        - 병영생활관 1개동, 취사식당 1개동

        - 규모 : 지하1층 / 지상3층

- 공사범위 : 건축 / 토목 / 기계 / 전기 / 조경

▣ B지역

        - 대지면적 : 19,122.63㎡

        - 병영생활관 1개동, 취사식당 1개동, 간부숙소 1개동, 위병소 1개동

        - 규모 : 지하1층 / 지상3층

- 공사범위 : 건축 / 토목 / 기계 / 전기 / 조경